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7.14(금) ~ 2023.07.20(목)

제공일시 2023 07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7.14(금) ~ 2023.07.20(목)

제공일시 2023 07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일본, 메탄을 배출량 감축 위한 기후 이니셔티브 계획

- 강력한 온실가스 누출로 인한 기후 영향을 우려하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일본, 호주가 액화천연가스 공급망의 메탄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18일 도쿄에서 열린 LNG 생산자·소비자 회의에서, 이번 이니셔티브는 LNG 생산자들이 메탄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함으로써 더 깨끗한 LNG 가치 사슬을 달성하기 위한 LNG 구매자들 사이의 전례 없는 협력이라고 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일본은 화물, 포트폴리오 및 운영자 수준에서 배출 강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수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동 성명서에서 밝혔음
- 별도로 열린 회의에서 일본 금속 에너지 안전 보장 기구는 개별 LNG 프로젝트의 메탄 배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제라 및 한국 가스공사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글로벌이코노믹, 2023.07.19) 성일만 기자

### 2. “무늬만 친환경 막는다”...호주, 그린워싱 방지 8가지 지침 발표

- 17일(현지 시각),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기업이 환경과 지속가능성 주장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설명한 초안 지침을 발표했음
- 이번 지침에는 ▲과학적 근거·환경적 이익의 과장 불가 등 정확하고 진실한 주장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3자 인증 활용 ▲제품의 순환주기 공개 미흡과 작은 글씨 인쇄 등 불충분한 정보 제공 금지 ▲제품의 분해가 온도·습도 등 특정 조건에서 이뤄짐을 명시 ▲탄소 배출량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 사용 ▲연관성 없는 시각적 요소 사용 금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 시 공급업체명, 사용한 재생에너지 등 정확한 정보 명시 등이 포함됨
- ACCC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에 대해,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00억원)의 과징금이나 평가 가치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음

(더나은미래, 2023.07.18) 황원규 기자

### 3. 유럽, 對 중국 제재 강화...공급망 동맹 일본·중남미 확대

-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가들이 대 중국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공급망·디지털분야 동맹 전선을 일본에 이어 중남미로 확대하고 있음
- EU는 17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와 '제3차 EU-CELAC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유럽과 중남미 지역 지도자 50여명이 8년만에 첫 정상회담을 가짐
-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관계를 확대해 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동맹을 구축,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 전환 등에 필수적인 광물을 확보하려는 EU 정책이 주목받고 있음
- EU는 CELAC와의 정상회담이 공정한 친환경·디지털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양측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라고 평가받고 있음

(전자신문, 2023.07.17) 이준희 기자

## 1. 재생에너지 가격 역대 최고치…RE100 기업 "탄소중립 부담"

-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치솟고 있음
- 18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시 주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난달 월평균 가격 7만2938원으로 집계됐음
- REC 월평균 가격은 지난 4월부터 7만원대를 넘어서며, 최근 4년 중 최고치를 기록 중임 REC 가격이 높아지며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의 비용부담도 커졌음
- 이에 따라 RE100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주요 고객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 발전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택한 기업도 있음
- REC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안정적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머니투데이, 2023.07.19) 이세연 기자

## 2. ESG 기본법 초안 공개…기업들 "취지 공감하지만 걱정돼"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본법 초안이 공개됨에 따라 기업들은 ESG 기본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촉진법'이 아닌 자칫 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음
- 이원욱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공동주최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를 열고,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음
-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개된 초안에 대한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음 토론에는 전문가 그룹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법무법인 원 등이 참여했으며, 기업 측에서는 SK, LG, 포스코홀딩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등이 참석했음
- 공통으로 우려를 표한 부분에는 ▲ESG 평가기관 신뢰성 ▲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필요성 ▲규제법 변질 가능성 등이 있음

(지디넷코리아, 2023.07.20) 류은주 기자

(전기신문, 2023.07.20) 윤병효 기자

## 3. “첫발 내딛은 국경통과 CCS… 탄소중립 이정표 향해 출발”

- 산업계에선 탄소중립 실현의 방안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에 주목하고 있음
- 특히 유럽에서는 국가 간 이산화탄소 이송·저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올해 3월 벨기에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덴마크 저장소에 주입한 게 최초 사례. 한국처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묻을 곳이 부족한 나라에서도 국내외 저장소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음
- 한국에선 삼성엔지니어링, SK E&S 등이 국경을 넘나드는 CCS 사업을 추진 중임

(국민일보 2023.07.17) 김혜원 기자

## 1. 뱅크오브아메리카, IRA 이후 27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발표

- 뱅크오브아메리카가 IRA가 법으로 서명된지 1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는데, 270개의 신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발표됐고 총 1300억달러의 투자 가치가 있었다고 밝혔음
- 특히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주제별로 분류했는데, 재생에너지(풍력블레이드, 태양광 패널 반도체 등 재생에너지 부품 제조나 전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사업),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ESS 및 BESS를 만들거나 공급하는 회사), 전력 그리드 개선(청정에너지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이 있었음
- 이외에도 청정연료 및 바이오연료(수소, 바이오,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생산), 탄소 포집(CCU에 관한 기술 장비나 부품), 전기차(전기차 및 충전기 부품 등), 소재 및 금속, 광산(전기차와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원자재), 빌딩 효율성 솔루션(에너지 효율시스템 운영 장비 및 기술), 농업과 임업(농업보존 및 산림관리 및 복원 등) 등의 기업리스트가 있었음

(CNBC, 2023.07.19) Catherine Clifford 기자

## 2. 닛산 전기차도 테슬라 충전방식 채택...일본 업체로는 최초

- 닛산자동차가 일본 업체로는 최초로,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규격 'NACS'(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를 채택하기로 했음
- 닛산은 우선 2024년 이후 북미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아리아에 NACS용 어댑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NACS 충전 포트를 갖춘 전기를 판매함
- 닛산이 테슬라 충전방식에 합류함으로써 다른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 NACS는 미국·유럽 자동차 대기업들이 채택을 결정, 북미에서 급속충전 규격의 사실상 표준이 되고 있으며, 테슬라의 북미 급속충전 설비 점유율은 약 60%에 달함

(뉴스웍스, 2023.07.20) 박명수 기자

## 3. 테슬라 공동 창업자도 주목한 이것... 폐배터리 '금맥 찾기' 경쟁 후끈

- 폐차된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분해해 니켈·리튬 등 소재를 추출한 뒤, 새 배터리에 다시 사용하는 산업이 새로운 '금맥'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 기업들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재활용) 산업에 잇달아 뛰어들고 있음
- 전문가들은 2040년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6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은 차기 먹거리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낙점했음
- 국내 기업들도 배터리 재활용 경쟁에 참전한 상태인데,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를 비롯해 성일하이텍, 세빛캠, 영풍, 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벌비스도 배터리 재활용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임

(국민일보, 2023.07.20) 양민철 기자

## 1. SK에코플랜트, 친환경 자회사 7곳 합병 결정/10조 대어 SK에코플랜트, IPO 시동... "따따블 되면 카카오 제친다"

- SK에코플랜트 자회사들이 대원그린에너지를 주축으로 총 7곳을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일괄 공시했음
- 이는 친환경기술, 이메디원, 디디에스, 새한환경, 도시환경, 제이에이그린 6곳이 대원그린에너지에 흡수합병되는 구조로, 이들 6곳은 9월 1일 합병을 마치는대로 소멸됨
- 한편, 몸값만 10조원에 육박하며 올해 '최대어'로 꼽히는 SK에코플랜트가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청구 준비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IPO(기업공개) 준비에 돌입했음
- 18일 한국거래소와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하반기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음
- 조단위 대어의 심사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SK에코플랜트는 내년 1분기 중 상장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마켓인사이트, 2023.07.17) 하지은 기자  
(뉴스1, 2023.07.18) 강은성 기자

## 2. EU 과불화화합물 규제 강화에 국내 완성차업계 비상

- 우리나라 5개 완성차 업체가 공동으로 유럽연합(EU)에 과불화화합물(PFAS) 예외 사용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음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유럽연합 내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9월 25일까지 진행 중임
-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산업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지원받아, 과불화화합물 7종과 관련한 예외적 사용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했음
-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나라 업계가 협회·단체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며, 국내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역내 산업계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이코리야, 2023.07.17) 윤수은 기자

## 3. LG화학, 석화·정유업계 기후대응 '최상위'

-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국토환경연구원, 뉴스핑크 등과 공동으로 석유화학·정유업종의 '온실가스 100만톤클럽'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석유화학·정유업종 기업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LG화학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음
- '온실가스 100만톤 클럽 분석 프로젝트'는 연간 온실가스를 100만톤 이상 배출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책임성, 효과성, 투명성, 효율성, 적극성 등 모두 5개의 영역(지표)에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평가하는 작업임
-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달 시멘트업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올해 말까지 업종별로 100만톤 클럽 해당 기업들을 분석할 계획임
- 특히 LG화학은 온실가스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온실가스감축 노력의 적극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그린포스트코리아, 2023.07.18) 황대영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7.14(금) ~ 2023.07.20(목)

제공일시 2023 07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아마존, 내년부터 공급망 협력업체에 배출량 보고 요구

- 아마존이 2022년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음. 가장 특징적인 점은 아마존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절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는 것임
- 보고서는 매출이 9%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위에서 배출량이 0.4% 감소했다고 밝혔음. 감소 폭은 작지만, 아마존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배출량이 18% 증가했으며 비즈니스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음
- 특히 아마존이 지난해 탄소 발자국을 0.4%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구매 덕분이라고 밝혔음
- 아마존은 스코프2 배출량이 29% 감소했고, 2022년 공급망과 관련된 스코프3 배출량이 0.7% 소폭 감소했다고 보고했음. 감소분의 상당 부분은 버지니아주에 신축한 아마존 본사에서 발생한 것임
- 반면, 아마존의 화석연료 및 냉매와 관련된 스코프1 배출량은 지난해 11% 증가했음. 아마존은 이를 비즈니스 성장, 물류 정책 변경 및 탄소 배출량 계산 방법의 개선 때문이라고 밝혔음
- 이에 더해 아마존은 ▲운영의 90%가 재생에너지로 구동 ▲배송에 사용되는 전기차 대수가 9000대 ▲북미 유통 센터에 1만5000대의 수소 동력 지게차 운용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율이 11.6% ▲아마존의 기후서약(climate pledge)와 관련된 제품의 수가 8억 개 등의 성과도 강조했다
- 한편 아마존의 기후서약에 의하면, 아마존은 파리 기후협정에서 제시한 2050년 넷제로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며, 2025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로 운영할 계획임
- 또 아마존의 전 세계 지속가능성 부사장 카라 허스트(Kara Hurst)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9가지 요점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업로드했음. 9가지 요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공급망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2024년부터 협력업체가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아마존과 공유하고 탄소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아마존은 기존의 공급망 표준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 또한, 아마존은 고성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집약도가 지난해 7%나 감소했으며,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서버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있음
- 아마존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데이터 센터는 고객의 사용 관련 탄소 발자국을 거의 80%까지 낮추고 100% 재생에너지로 구동하면 이를 96%까지 낮출 수 있음
- 이외에도 아마존은 지난해 기후금융업계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국제개발처(USAID) 기후 성 평등 기금에 300만 달러(약 37억원)를 기부하고 여성 기업가를 지원했음
- 또한, 협력업체 다양성 및 포용성(SDI)을 강화하고 375개의 다양한 협력업체와 함께 33억달러(약 4조1657억원)를 지출했고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 대표를 대면으로 만나는 행사도 주최했음
- 카라 허스트 부사장은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치 사슬 중 하나를 갖고 있다. 배출 감소의 첫 번째 단계는 배출량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협력업체와 계속해서 직접 협력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보고 및 배출 목표 설정을 요구하도록 공급망 표준을 업데이트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규모, 투자 및 혁신을 사용하여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지속 가능한 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과 도구를 협력업체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음

(인팩트은, 2023.07.20) 홍명표 기자